

북큐레이션을 통한 테마 컬렉션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구

- 공공도서관 담당자의 심층면담을 통해 -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Operation of Theme Collections through Book Curation: In-depth Interview with Public Librarians

표 순 희 (Soon Hee Pyo)*

백 지 원 (Ji-Won Baek)**

목 차

- | | |
|----------|-----------------------|
| 1. 서 론 | 4. 테마 컬렉션의 구축 및 운영 모형 |
| 2. 연구 설계 | 5. 결 론 |
| 3. 분석 결과 | |

초 록

본 연구는 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테마 컬렉션의 개념을 정립하고, 테마 컬렉션 운영의 실재를 밝혀 향후 테마 컬렉션 구축과 운영을 위한 방법론 설정 및 향후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서울·경기지역 공공도서관 네 곳의 관장 및 테마 컬렉션 담당 사서 총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분석의 결과, 테마 컬렉션은 자관의 장서와 이용자 및 커뮤니티에 대해 충실하게 이해하고, 자관의 서비스 목표와 지향을 공유한 상태에서 제대로 구축되고 기능할 수 있음을 밝혔다. 또한 테마 컬렉션 구축 업무는 사서 개인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는 면이 있으며, 기존의 도서관 업무 경계를 넘나드는 상호 연계된 성격을 지녔음을 파악하였다. 마지막으로 테마 컬렉션 구축 및 운영을 위해서 참조할 수 있는 현행 테마 컬렉션의 종합적인 모형을 제시하고 이의 의의와 향후 과제를 논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theme collection in the library, to clarify the reality of the theme collection operation. This study was to set up methodology for constructing and operating the theme collection in the future and to provide implications for future developmen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a total of 12 directors and librarians from four public librari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revealed that the theme collection can be built and function properly with a solid understanding of its collection, users and community, and sharing its services goals and orientation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 task of constructing a theme collection contributes to the establishment of the identity of the librarian, and it is interrelated with the various library works. Finally, a comprehensive model of current theme collections was discussed.

키워드: 테마 컬렉션, 컬렉션, 북큐레이션, 큐레이션, 테마 도서, 전시 도서, 공공도서관

Theme Collection, Collection, Book Curation, Curation, Theme Book, Book Display, Public Library

* 성균관대학교 정보관리연구소 연구원(shpyo88@hanmail.net / ISNI 0000 0004 6072 9645) (제1저자)

** 송의여자대학교 문헌정보과 교수(jwb@sewc.ac.kr / ISNI 0000 0004 7523 4426)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2019년 10월 5일 최초심사일자: 2019년 11월 7일 게재확정일자: 2019년 11월 22일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3(4): 189-211, 2019. <http://dx.doi.org/10.4275/KSLIS.2019.53.4.189>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근래 들어 큐레이션이라는 개념이 여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면서, 도서관계에서도 북큐레이션이라는 이름으로 컬렉션을 구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도서관이 특정 테마를 중심으로 도서관 자원을 별개의 모음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도서관 내 특정한 위치에 별치나 전시의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서비스는 도서관에 따라 컬렉션, 테마 도서, 전시 도서, 추천 도서, 북큐레이션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고 있다.

테마 컬렉션을 구축하지 않던 도서관에서 이러한 서비스의 도입을 고려하기도 하고, 도서관 관련 업체에서는 북큐레이션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한다. 또한 도서관이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북큐레이션 전문가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한다. 이처럼 북큐레이션 또는 테마 컬렉션이 아직까지 전문 영역이나 업무로 이론과 기반을 갖추고 있지는 않으나, 테마 컬렉션 서비스는 이미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접할 수 있게 되었다.¹⁾

현재, 도서관 테마 컬렉션의 등장 배경이나 운영 방식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알려지거나 종합적으로 분석된 바는 없다. 다만, 도서관이 처한 시대적, 사회적 환경, 즉 변화하는 이용자 요구, 빠르고 다채롭게 진화하는 도서관 외부의 정보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등장하였다고 짐작할 수 있다. 또한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 서비스의 전체적인 현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강남구립도서관들의 공동수서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 북큐레이션 구축 사례, 파주시 공공도서관들의 컬렉션 구축 내용이 통합 소식지에 정기적으로 수록되는 사례, 그리고 느티나무도서관이 지난 3년간 컬렉션 워크숍을 개최해온 것 등을 고려할 때, 테마 컬렉션을 구축하고자 하는 관심과 실제 운영 사례는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테마 컬렉션이 도서관의 서비스로 정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의 북큐레이션 및 사서의 북큐레이터로서의 업무와 역할이 무엇인지, 도서관은 이러한 서비스를 어떤 관점에서 다루고 발전시켜야 할지에 대한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개별 도서관은 구축된 테마 컬렉션을 제공할 뿐, 구축의 배경이나 동기, 운영 방법, 효과 등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다. 때문에 컬렉션을 운영하는 도서관은 그 성과를 파악하기 어렵고, 운영 방식을 체계화하거나 선진 사례를 참조하기에도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도서관 전반에 걸쳐 테마 컬렉션이 성공적으로 구축되고 활용되기 위해서는 도서관의 경험과 성과가 개별 기관의 차원에 머무는 한계를 벗어나 테마 컬렉션에 대한 정확한 개념 정립, 테마 컬렉션 운영의 명확한 목표와 방향성 설정, 방법론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와 정보 공유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지는 북큐레이션을 통한 테마 컬렉션의 개념을 정립하고, 테마 컬렉션 운영의 실재를 밝혀 향후 테마 컬

1) 본 연구에서 '테마 컬렉션'은 '북큐레이션' 활동의 결과로 구축되는 것으로 개념 관계를 정리하였다.

렉션 서비스 개선과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더불어 도서관의 많은 노력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그 과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테마 컬렉션 서비스의 개발과정을 가시화 하고 테마 컬렉션이 갖는 정보서비스, 장서관리, 조직경영, 정보조직 등 다른 도서관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밝힘으로써 테마 컬렉션의 역할과 위상을 제고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방법과 범위

테마 컬렉션은 운영되고 있는 양상과 이를 해석하고 의도하는 방법이 도서관마다 제각기 다르며, 도서관이 전통적으로 수행해 온 업무에 비해 연혁이 짧고, 상대적으로 덜 보편화된 업무 또는 서비스 영역이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테마 컬렉션의 구축과 운영 현황을 통계적인 양적 분석을 통해서 밝히기 보다는 각 도서관에서 테마 컬렉션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관장 및 담당자를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통해 질적 자료를 수집하여 테마 컬렉션 운영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체계화하였다.

구체적인 연구의 방법과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컬렉션을 구축하고 있는 서울 및 경기 지역 공공도서관 4개관을 선정하여 각 도서관의 관장 및 컬렉션 구축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서를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4개의 공공도서관은 선정 시점인 2018년 봄을 기준으로 했을 때 컬렉션 구축이 최소 2년 이상 지속되어 온 곳으로, 컬렉션 구축의 전반적인 측

면을 파악하고 분석하기에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둘째, 수집된 면담 내용은 녹취 및 전사하였으며 개방코딩을 통해 면담 내용을 개념화하고 범주화했다. 면담 내용의 개념화는 연구자가 전사한 전체 문서를 정독하고 문장이나 문단 단위로 분석하여 코딩하였다. 코딩된 문서는 연구자들이 2회에 걸쳐 상호 검토함으로써 코딩에 의한 개념화에 일관성을 기했다.

셋째, 이와 같은 작업을 토대로 테마 컬렉션의 개념 정의, 구축 배경 및 목적, 구축, 운영, 효과와 관련한 결과를 기술하였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각 기술 내용, 특성, 데이터의 양에 따라 연구자가 자유롭게 서술하거나 표나 그림과 같은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기술하였다.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구축과 운영 단계별 요소를 중심으로 테마 컬렉션 운영 과정과 도서관 서비스를 모형화 하여 최근 도서관의 중요한 서비스로 자리 잡고 있는 테마 컬렉션의 형성 과정을 제시하였다. 더불어, 공공도서관의 테마 컬렉션이 갖는 정보서비스, 장서관리, 조직경영, 정보조직 등 다른 도서관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용어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인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하여 특별히 구분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컬렉션’이라는 용어를 ‘테마 컬렉션’과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1.3 선행연구

도서관의 테마 컬렉션에 관한 연구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주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왔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를 테마 컬렉션의 정의와 유형, 기존 도서관 서비스와의 관련성, 디스플레이의 개선, 컬렉션 서비스 효과에 대한 연구 등의 내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먼저, 김영석, 박연식, 이용주(2018)는 북큐레이션을 정의하고, 이를 도서의 선정, 배가, 디스플레이, 관련 프로그램으로 연계 확장 등 일련의 과정에서 어느 단계까지 큐레이팅 작업이 이루어지는지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백지원(2018)은 테마 컬렉션을 큐레이션 작업을 기반으로 하여, 정보자료의 개발과 효과적인 제공을 접목한 서비스로 정의하였다. 특히 테마 컬렉션이 가진 분류로서의 성격과 효과를 탐구하고, 테마 컬렉션의 기능과 특성을 이용자 중심적인 분류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Ranasinghe와 Chung(2019)은 도서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큐레이션 서비스와 도서관 참고서비스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큐레이션이 디지털 시대의 정보 환경 변화와 이용자 기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서관 참고서비스가 진화한 것이라고 분석하였다.

디스플레이의 관점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Baker(1986)는 2개의 작은 공공도서관 환경에서 장서 디스플레이에 따른 도서 활용 증가에 대하여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Camacho, Spackman and Cluff(2014)는 Brigham Young University 경영 도서관에서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표지를 전면에 노출시키는 디스플레이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장서의 연간 이용률이 58% 증가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들은 새로운 디스플레이 방식을 통해 도서의 장서순환 효과와 장서

이용증대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안정희(2015)는 도서관 디스플레이를 친절한 커뮤니케이션, 시각적 이미지로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도록 하는 것, 공간에 대한 다양한 배려를 하는 것, 사고의 전환을 불러일으키는 것, 상상의 세계로 이끄는 것 등 7가지로 그 기능을 구분하고 다양한 컬렉션 구축의 사례를 소개하였다.

테마 컬렉션을 서비스의 관점에 집중하여 그 활용과 효과에 대해 연구를 수행한 박양하(2016)는 학교도서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의 하나로 북큐레이션을 제안하고 기존 학교도서관 시스템에서의 도서 추천 서비스를 분석하고 큐레이션의 기준이 되는 추천 기준 12개를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도출된 기준에 대한 이용자의 선호도를 조사하여 북 큐레이션 서비스로 적용하기에 적합한 기준을 분석했다.

이은정과 김기영(2017)은 학교도서관에서 이벤트 체험과 컬렉션 체험을 융합한 프로그램을 '이벤트컬렉션 프로그램'이라 칭하고, 이의 효과와 활용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벤트컬렉션이 새로운 지식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식의 구조화를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자기주도적 독서에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정유라와 이지연(2017)은 테마 컬렉션을 '테마전시 서비스'로 명명하고, 테마전시 서비스가 이용자 인식과 이용행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확인하고 그 긍정적인 효과를 측정해내었다.

이상과 같이 테마 컬렉션에 관한 연구는 그 개념을 정립하고자 하는 연구,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려는 디스플레이에 관한 연구, 그리고 이용자 서비스의 효과 측면에서 수행된 개념적이거나 실험적인 연구가 주를 이룬다. 그러나 실제

도서관 현장의 관점에서 컬렉션의 구축과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발전을 위한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테마 컬렉션의 구축과 운영에 대한 실제적인 정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테마 컬렉션의 체계성을 강화하고 도서관의 핵심 서비스로 정착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고 자 하는데 연구의 차별성이 있다.

2. 연구 설계

2.1 사전 조사

본 연구는 새로운 이론을 발견하기보다 현재 도서관의 테마 컬렉션 운영 현황을 더욱 명확히 분석하고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개별 심층면담에 앞서, 사전 현장 조사 및 테마 컬렉션 구축의 전반에 대해 논의하는 사전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2018년 1~3월 사이에 테마 컬렉션을 구축 중인 도서관을 개별 방문하여 컬렉션이 운영되는 실제 현장을 살펴보고 담당 사서와의 대화를 통해 운영 방식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질문을 도출하였다.

사전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테마 컬렉션 구축의 경험이 있는 도서관장 4인이 참여한 사전 집단 인터뷰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질문을 도출하였다. 사전 인터뷰는 2018년 4월 28일에 약 1시간 동안 실시되었다. 집단 인터뷰를 통해 각 도서관 사례의 기본 정보를 수집하고, 각 사례별로 컬렉션 구축의 경험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였으며 이러한 주요한 내용을 질문지로 정리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질문지는 2018년 6월 16일

도서관장 2인과의 회의를 통해 검토하고 보완하였다.

2.2 조사 대상 및 질문 구성

연구 대상 도서관은 연구자가 사전에 개별 방문하여 테마 컬렉션이 운영되고 있는 것을 조사한 사례들 중 서울 및 경기지역의 공공도서관 4개관이다. 기관의 운영 형태는 사립 공공도서관,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 지자체 소속의 지역대표 공공도서관 등으로 다양했다.

심층면담 참여자 선정을 위해서는 각 도서관 장으로부터 해당 도서관에서 컬렉션 구축에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사서들을 추천 받았다. 이와 같이 표본의 기준을 사전에 정의한 설계는 이론 개발의 한계는 있으나 집단 간의 특성 파악과 비교가 쉽고 기존의 현황을 더 분석하고 세분화하기에 적절하다(우베 플릭 2009). 추천받은 사서들에게 면담을 요청하고 이에 응한 각 기관별 사서 2인씩을 면담 대상으로 하여 관장 4인, 도서관별 사서 2인씩 총 12명을 면담하였다.

면담 참여자의 도서관 경력은 면담 시점을 기준으로 2년 미만부터 25년까지로 다양했다. 면담 참여자 중 2인은 남자이고 나머지는 여자였다. 테마 컬렉션 구축과 관련한 면담 대상자의 업무 여건은 테마 컬렉션 구축 및 운영 업무를 중점적으로 담당하는 사례, 다른 업무와 컬렉션 구축 업무를 병행하는 사례, 다른 업무를 담당하지만 기관 특성상 모든 직원이 컬렉션 구축에 참여하게 되는 사례 등 다양했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관장 및 사서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표 1〉 심층면담 대상자 특성

구분 회차	도서관 (운영주체 및 특성)	인터뷰 대상자	성별	도서관 경력 (2018년 7월 기준)	주요 담당 업무
1차 면담	A (사립)	관장 A	여	18년 11개월	도서관 업무 총괄
		사서 A1	남	2년 10개월	마을, 지역사회, 외부 단체와의 연계, 협력 등 아웃리치 총괄
		사서 A2	여	1년 9개월	정보서비스 등 이용자 대면서비스 전반
2차 면담	B (지자체)	관장 B	여	23년	도서관 업무 총괄
		사서 B1	여	8년	테마 컬렉션 업무 주도, 자료실 운영
		사서 B2	여	6년	테마 컬렉션 업무, 자료실 운영
3차 면담	C (지자체, 대표도서관)	관장 C	여	24년	도서관 업무 총괄
		사서 C1	여	7년	종합자료실 운영
		사서 C2	여	7년	커뮤니티 자료실 운영 및 야간행사
4차 면담	D (지자체)	관장 D	남	25년	도서관 업무 총괄
		사서 D1	여	10년	수서, 행정업무 총괄
		사서 D2	여	2년 9개월	테마 컬렉션 업무

심층면담에서는 반구조화된 면담방식을 이용하여 크게 5가지 영역으로 구성된 질문 항목을 제시하였고, 이외에는 연구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는 형식을 취했다. 면담 조사 질문은 테마 컬렉션과 관련하여 구축 배경, 구축 방법, 운영 지원, 주제, 효과 및 기타에 관한 20개 내외의 질문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일부는 관장 또는 사서에게만 해당되는 문항이었다. 세부적인 면담 조사 질문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조사의 진행 과정에서 세부 질문을 첨가하며 자유롭게 진행하였다. 다섯 개의 영

역과 주요 면담 질문은 〈표 2〉와 같다.

면담 조사는 2018년 6월 8일~2018년 7월 19일 사이에 기관별로 진행하였다. 인터뷰는 면대면으로 진행되었으며 인터뷰 시간은 1시간 30분~2시간 30분 정도 소요되었다. 면담 내용을 연구 참여자의 동의 아래 녹취하였으며 면접 도중 특징적인 부분과 표현들을 기록하기 위하여 면담 노트를 작성하였다. 인터뷰는 1차로 관장과 사서가 집단으로 진행하였고, 2차로는 보다 자유로운 의견 개진 기회 마련을 위하여 관장의 배석 없이 사서들만을 대상으로 개

〈표 2〉 테마 컬렉션에 관한 심층면담 질문의 구성

질문 영역	면담 질문
구축 배경	• 컬렉션 구축 시기, 계기, 목적 등
구축 방법	• 컬렉션 유형, 규모, 주기, 이름 짓기, 이용 등
운영	• 컬렉션 운영을 위한 지원, 어려움, 개선점, 발전 방향 등
주제	• 컬렉션의 주제 선택 과정과 분포
효과	• 컬렉션 기대 효과(이용자, 사서, 도서관 측면) 및 확산
기타	• 컬렉션의 업무 성격 및 기존 도서관 업무와의 연계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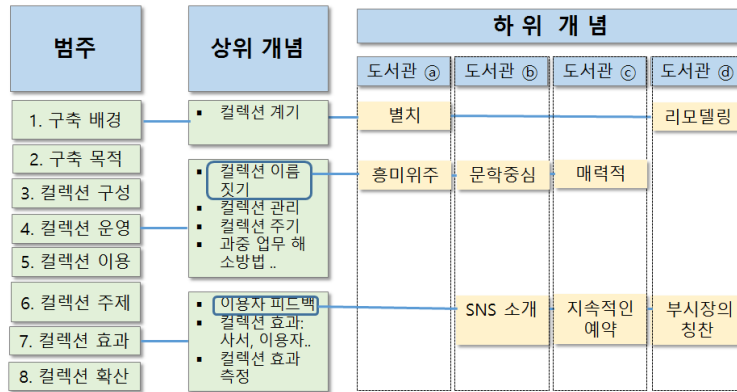
별 면담이 진행되었다. 이후 추가 답변이나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이메일 인터뷰로 보완하였다.

2.3 분석 방법

녹취된 면담 내용을 도서관별로 진사하였다. 진사한 자료는 개방코딩을 통해 개념화 하였다. 개방코딩은 질적 연구에서 자료 분석의 첫 번째 단계로 자료에서 중요한 단어나 집합체를 찾아내고 이들에게 적절한 명칭이나 제목 즉, 개념어를 붙이는 작업이다(박휴용 2014). 이때, 붙이는 개념어는 면담자들이 말한 단어로 표현

하거나 연구자가 선택한 단어의 집합체로 표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면담 내용을 1차적으로 개념화 하고 이를 <표 2>에서 제시된 질문 영역 및 개념화된 내용을 기초로 하여 상위 개념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추출된 유사한 상위 개념들을 묶어 8개의 범주로 정리하였고 각 범주와 상위 개념 및 이에 속하는 하위 개념을 4개의 도서관별로 구분하고 요약 하였다(<그림 1> 참조).

개념 추출과 범주화 과정의 예시는 <표 3>과 같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각 범주와 상위 및 하위 개념으로 분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되었다.



<그림 1> 개방코딩 과정과 내용

<표 3> 개념 추출 및 범주화 예시

면담 내용	하위 개념	상위 개념	범주
책이 없어서 아쉬운 세대는 아니니 훨씬 더 사람들에게 말을 걸고 적극성을 가지자(브라우징의 힘)라는 생각을 해서...	책이 풍족한 세대. 그러나 책과 단절 책을 통한 소통의 방법 고민	컬렉션 계기	컬렉션 배경
'사상이 아니라 문화적인 표현을 통해 타이틀을 잡는 것이 필요하고 ...(중략)... 테크닉이 필요해요	보여지는 워딩 중요, 컬렉션 명명에 기술, 센스, 균형이 요구됨	컬렉션 이름 짓기	컬렉션 운영
장서 측면에서도 이용률이 높고 이용자들이 도서관과 사서를 인식하는 데에 인식측면이 좋아진다는 것이 있죠	장서 이용량 증가, 사서에 대한 인식 향상	컬렉션 효과	컬렉션 효과

3.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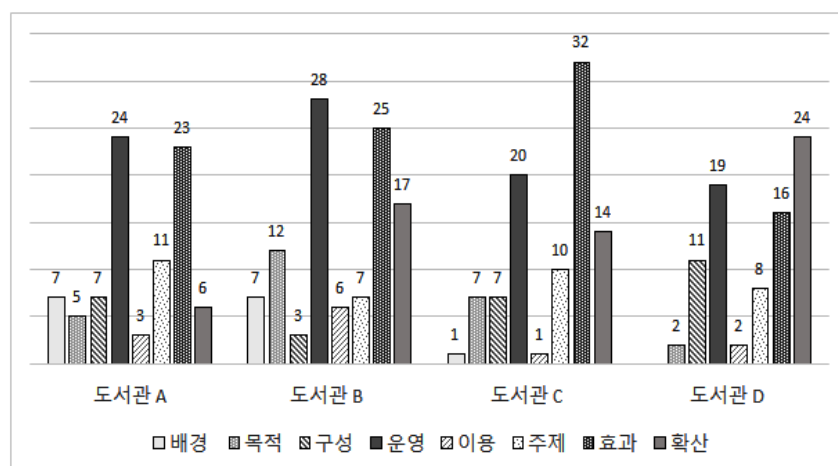
3.1 개요

8개의 범주 기준으로 추출된 하위 개념은 총 365개로, A도서관 86개, B도서관 105개, C도서관 92개, D도서관 82개였다(〈그림 2〉 참조). 각 도서관에서 추출된 개념의 양을 범주별로 보면, 테마 컬렉션의 운영(24.9%)과 효과(26.3%)에 대한 내용이 다른 내용에 비해 월등히 많고, 다음으로 확산(16.7%)과 관련된 내용이 많이 언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면담지를 토대로 면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서관별로 나타난 범주별 개념의 양이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도서관마다 테마 컬렉션을 시작한 시기와 동기, 환경 등이 다르고, 지역대표 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C도서관이 '효과'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한 것과 같이 도서관별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3.2 테마 컬렉션의 개념 정의

선행연구를 통해 보면 테마 컬렉션의 구축·운영에 관한 서비스를 부를 때 컬렉션, 테마 컬렉션, 테마 전시, 북큐레이션, 추천도서 등 여러 용어가 사용된다. 김영석, 박영식, 이용주(2018)는 이들 중 북큐레이션이라는 용어에 대해 “사서가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도서 중에서 특정 이용자 집단에게 유익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주제에 해당되는 도서들을 선정하고, 그 도서의 이용을 유도하기 위하여 도서관의 특정 위치 혹은 장소에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방식으로 흥미롭고 세련되게 전시(display)하는 일련의 활동”이라고 정의하였다.

A도서관의 경우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장서를 전체 장서와 별도로 '사(회를) 담(는 컬렉션)' 즉, '사담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구별하여 부르고 있다. '큐레이션'은 본래 단어의 뜻을 살렸을 때 소장품을 '돌본다(care)'는 의미가 강하고, '컬렉션을 구성하는 행위'라는



〈그림 2〉 도서관별 추출된 하위 개념의 분포

의미는 ‘컬렉트’라는 용어를 통해 그 적극성이 더 잘 드러나기 때문에 ‘컬렉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고 밝혔다.

B도서관의 경우 ‘컬렉션’이 일반적으로 도서관 ‘장서’의 의미로 많이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컬렉션’보다는 ‘큐레이션’에 대한 선호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B도서관은 도서관의 기존 장서를 나타내는 ‘컬렉션’과 의미적 혼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서브 컬렉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이용자들에게 테마 컬렉션의 개념을 이해시키기가 좋았다는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D도서관은 ‘테마 전시’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B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컬렉션’이라는 용어는 장서라는 개념으로 쓰이고 있고, 이 용어만으로는 의미가 협소해져버리므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테마 컬렉션의 개념 및 용어에 대한 면담 대상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컬렉션이 갖는 의미가 기존의 장서를 넘어 다양한 목적성을 가지고 구축되는 정보의 집합, 지식의 모음이라는 것이었다. ‘큐레이션’이나 ‘전시’와 같은 유사한 용어 중 하나를 선택하거나 혼용해서 사용하는 것에 큰 거부감은 갖고 있지 않았으며, 도서관계 전체의 논의를 거쳐 용어에 대한 합의가 있기를 바라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용어를 검토한 결과, 테마를 중심으로 장서의 일부가 모여 컬렉션을 이룬다는 핵심 개념에 집중하여 ‘테마 컬렉션’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고, 이는 근래 많이 사용되는 ‘북큐레이션’과 근본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3.3 테마 컬렉션 구축 배경과 목적

3.3.1 구축 배경

테마 컬렉션의 본격적인 시작 시기는 대부분 2010년대 중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각 도서관에서 테마 컬렉션 구축의 계기가 마련되고 관련 활동이 처음 이루어진 시점은 2000년부터 2015년에 걸쳐 다양했다.

A도서관의 테마 컬렉션은 별치와 분류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되었다. 2000년 독서회를 위해 별치되어 있어 눈에 띄던 책들이 활동 이후 원래의 분류에 따라 서가로 돌아가면서 드러나 보이지 않게 되었고, 이에 다시 별치가 등장하게 되었다. 또한, 어린이 도서의 경우 기존의 십진분류로 구분하는 것의 한계를 느끼고 분류 방식을 변형하고 별치하게 되었다. 이렇게 별치가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이 테마 컬렉션의 형태로 이어지게 되었다.

어린이 문고시절 십진분류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오히려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점이 많아 분류를 변형하고 따로 배가를 했어요. 이렇게 분류를 정리하니 별치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죠.
(관장 A)

B도서관의 경우 어린이도서관의 이전과 두 번의 리모델링에 따른 공간 재배치라는 도서관의 물리적 환경 변화가 테마 컬렉션 서비스를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라고 하였다. C도서관은 책의 가시성을 높이기 위한 디스플레이의 변화가 일차적인 이유였다. 특히, 그림책의 경우 책 표지가 갖는 시각적 효과가 이용자의 관심을 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고자 하였다.

책의 앞면이 보이는 것에 대한 매력이 있어요. 서점이나 대형문고 같은 곳을 가면 책들이 눈에 확 들어오는 데에 비해서 우리는 책을 열심히 훑지만 책이 눈에 확 들어오기보다 서가가 먼저 보여요. 그래서 책들이 눈에 띄게 하는 데에 있어서 디스플레이에 대한 관심이 생기게 되었죠. (관장 C)

도서관별로 테마 컬렉션 구축의 구체적인 시각 계기는 별치, 리모델링, 디스플레이 강화와 같이 차이가 있으나, 책의 가시성을 확보하고 기존 분류 방식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이용자 서비스를 개선시키고자 하는 동일한 사상이 바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도서관 관장의 철학과 의지가 테마 컬렉션 추진 전반에 걸쳐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조사 대상 도서관의 관장들은 대부분 이전 도서관에서 관장이나 사서로 근무하면서 KDC 분류와 서집식 분류, 디스플레이, 장서의 활용, 이용자와의 관계 등 테마 컬렉션 구축과 운영의 필요성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이와 관련된 여러 시도를 꾸준히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3.3.2 구축 목적

테마 컬렉션의 일차적인 목적은 이용자 요구

파악과 소통 증가 등을 통한 장서 이용 및 도서관 이용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테마 컬렉션의 목적을 서비스, 이용자, 사서, 도서관, 사회 측면에서 추출한 하위 개념으로 정리 하면 <표 4>와 같다.

A도서관의 경우 독서회의 도서를 제공함으로써 프로그램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고 D도서관은 다양한 책을 많이 노출시킴으로써 새로운 책을 발견하고 이용시키기 위한 목적이었다. B도서관과 C도서관 또한 많은 책의 노출, 새로운 책의 발견과 대출을 통한 이용자와의 적극적 소통 도모, 그리고 책, 이용자와 사서와의 접점 마련 등 서비스 관점에서 테마 컬렉션의 목적을 주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테마 컬렉션을 매개로 이용자와 소통하고 요구를 파악하고 이용자의 사고와 호기심을 자극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강미혜(1996)는 도서관의 전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의 의식수준을 끌어 올리는 이용자 교육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였다. 테마 컬렉션을 구축하는 면담 대상 사서들도 테마 컬렉션을 통해 이용자의 생각 혹은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를 통해 이용자 교육의 효과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테마 컬렉션의 목적 중

<표 4> 테마 컬렉션의 목적

영역	하위 개념
서비스	다양한 책을 소개, 도서관 활성화, 많은 책의 노출, 새로운 정보 제공, 새로운 책을 드러내는 것, 새로운 책의 발견, 책과 소통, 이용 활성화, 책과 이용자의 접점, 책과 친해지기
이용자	이용자 요구 파악, 사서와 이용자와의 접점, 상호작용, 이용자와 소통, 이용자 생각, 이용자 호기심 자극
사서	사서의 가치 증명, 사서의 성장 계기, 사서의 전문성 향상, 사서의 정체성, 나의 자아 찾기
도서관	도서관 서비스의 정체성, 도서관과 소통, 도서관의 성장 계기
사회	사회와 소통, 사회적 관심 확장

특히 주목할 부분은 사서의 관점에서 나타났다. 사서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사서의 역량과 정체성을 명확히 하고, 더 나아가 사서와 도서관의 존재 가치를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테마 컬렉션이라는 도서관 서비스의 가치가 이용자뿐만 아니라 제공 주체인 사서들에게도 큰 의미가 있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다.

누군가가 사서들은 무슨 일을 하냐고 물었을 때 대출 반납만하는 것이 아닌, 자료를 가지고 정말 많은 것을 한다는 것을 보여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테마 컬렉션을 통해) 사서, 직원들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것이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죠. 그리고 그 성장이 서비스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그게 곧 도서관 전체의 변화인 것이고요. (관장 B)

3.4 테마 컬렉션의 구축

3.4.1 테마의 정보원과 선정

테마 컬렉션 구축에 있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는 작업은 테마를 선정하는 것이다. 테마 컬렉션의 '테마'는 전달하고자 하는 큰 메시지로, 여러 주제나 관점이 결합되어 특정한 메시지를 담는 개념이다(백지원 2018). 이러한 '테마'를 선정하는 것은 대형서점의 베스트셀러를 살핀다든지, 추천도서 목록을 검토하는 것과 같이 단순한 몇 가지 정보원을 참고하는 작업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

테마는 사서가 접하는 모든 대상에서 나올 수 있다. A도서관은 테마를 정하기 위한 정보원을 이용자와 매체로 구분하였다. 사서는 대출, 참

고 질문, 프로그램과 같은 다양한 서비스 현장에서 대면하는 이용자와 소통함으로써 테마의 실마리를 얻는다. 대출과 반납은 도서관에서 이용자를 대면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로 사서는 데스크에서 이용자와의 소통을 통해 많은 요구를 감지할 수 있다. 면담 사서들 모두는 이러한 대출 반납을 통한 이용자와의 소통을 중요시 여기고 있었다.

프로그램은 해당 시기의 이슈와 연관된 프로그램 혹은 독서회나 강좌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테마가 이와 연계되어 도출되기도 하였다. 도서관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 및 기관의 요청 등에 의해 테마가 선정되기도 하는데 A도서관의 경우 구제역이 이슈가 되었을 때에 환경 단체의 요청으로 구제역과 관련된 테마 컬렉션을 구축하여 서비스 하였다.

또한 사서는 테마 선정을 위해 비의도적으로 혹은 의도적으로 접하거나 이용하는 잡지, 신문, 도서, 세미나 정보 등과 같은 매체를 이용한다. 테마 선정을 위한 주요 정보원을 A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보면 <표 5>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테마 선정을 위한 협의와 최종 결정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회의에서 이루어진다. 도서관마다 차이는 있으나 연초 혹은 월초에 열리는 회의에서 대략적인 큰 범주의 테마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부서나 자료실에서 구체적인 테마를 선정한다. 이를 위해 사서 개인이 읽거나 접한 테마 혹은 이용자들의 요구들을 수집하는 사전 작업들을 수행한다.

C도서관은 테마 컬렉션을 위해 2주에 한 번씩 정보서비스 워크숍을 열고 있으며 매월 소식지 발간을 위해 기획회의를 갖는다. 정보서비스

〈표 5〉 A도서관 테마 선정 정보원

구분		정보원
이용자	대출 반납	대출 반납 시 이루어지는 대화
	정보서비스	정보 서비스를 통해 파악된 요구
	프로그램별 자료	유아: 구연동화에서 읽어준 그림책들
		어린이: 독서클럽에서 선정한 도서
		청소년: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추천도서로 모은 책들
기관	성인: 작가 사인회, 강연 등에서 해당 작가의 도서 지역사회의 다양한 단체 및 기관의 요구	
매체	사서가 접한 도서, 잡지, 신문, 방송, 세미나 등의 매체	

워크숍은 이용자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테마 선정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지는 장으로 도서관 구성원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기획회의 또한 테마 컬렉션 구축에 중요한 회의로, 이용자의 요구와 사서가 준비한 테마를 결합시키고 최종 테마를 결정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4.2 테마의 주제 분포

C도서관은 하나의 테마가 결정되면 해당 테마로 모을 수 있는 도서를 여러 주제 분야에서 선정 하도록 한다. 또한 사회과학 분야의 테마가 결정되면 관련 논문을 읽고 사서들이 편향되지 않은 장서 구성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히고 있다. D도서관 또한 테마를 하나로 정하더라도 해당 테마에 따른 도서를 다양한 주제에 걸쳐 선정하거나, 테마를 주제가 아닌 키워드로 정하여 해당 키워드를 포함하는 장서를 각 주제 분야에서 폭넓게 선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노력들은 하나의 테마 아래 여러 주제와 관점을 결합한 특정한 메시지를 담아 장서의 활용성을 높이려는 테마 컬렉션의 목표(백지원 2018)를 잘 뒷받침해 준다고 볼 수 있다.

공공도서관에서 구축하는 테마 컬렉션의 테

마는 대체로 사회과학, 인문학 쪽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는 기본적인 테마 컬렉션의 관심이 대중의 일상생활에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러운 경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었다. 예를 들어, A도서관 '사담 컬렉션'의 장서는 주로 사회과학 분야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관장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기존 (분류) 체계를 기준으로 본다면 현 시점의 우리 도서관의 컬렉션은 사회과학에 치중되어있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한 주제에 치중되어있다고 보는 것도 KDC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지, 컬렉션의 큰 주제는 삶이기 때문에 특별히 치중되어있다고 보지 않아요, ...(중략)... 지금 컬렉션이 조금은 무거울 수 있겠다는 우려가 있지만, 사회적으로 주목받지 못한 주제들이 드러나니까 자연스럽게 거쳐야 될 과정이 아닐까 생각해요. (관장 A)

한편, 테마 컬렉션이 시대적, 사회적인 이슈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각 도서관은 테마 선정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가지고 있다. 특히 정치적인 이슈와 관련된 테마 컬렉션에 대해서는 불편함을 드러내는 이용자도 있다. B도서관

은 역사적인 것이나 정치적인 것으로 테마를 선정할 때에는 민감한 부분이 있어서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하였다. 예를 들어, 제주 4.3 사건이나 6월 항쟁과 같은 테마의 컬렉션은 주제가 갖는 무게감을 완화하고 이용자가 편하게 다가올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고 있다. B도서관은 특별히 인근에 문인이 많이 거주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살려 사회나 정치적인 테마에 대하여 문학적인 시각에서 컬렉션을 구성하기도 한다.

이처럼 테마는 도서관 이용자의 당시의 관심을 다루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모든 도서관들이 인위적으로 테마 간의 균형을 맞추려는 노력을 하지는 않고 있었으나, 하나의 테마 내에서는 다양한 주제의 장서들이 포함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3.4.3 테마 컬렉션의 이름

이용자는 테마 컬렉션의 이름으로 처음 컬렉션을 접하게 된다. 따라서 테마 컬렉션에 이름을 부여하는 것은 이용자의 관심을 유도하는 중요한 작업이다. 테마 컬렉션의 이름은 이용자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동시에 평상시에 익숙지 않은 주제도 편안하게 접할 수 있는 평범성과 일상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테마 컬렉션의 이름은 컬렉션 관련 회의에서 담당자와 직원들의 논의로 결정을 하는데, 이용자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매력적인 이름을 짓기 위해 노력한다. 이러한 컬렉션의 이름 짓기의 예를 D도서관의 사례를 통해 보면 다음과 같다.

11월에는 '나그네 새'라고해서 철새가 떠난 것과 접목하여 떠난 나그네와 관련된 네이밍을 했어

요. 다양한 떠남에 대해서 담은 컬렉션이에요. 직접적으로 '철새'라는 말을 안 쓰고, '나그네 새'라고 함으로써 이사 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주민, 난민 등 모든 주제 분야로 확장해서 생각할 수 있죠. (사서 D2)

B도서관이 테마 컬렉션의 이름을 부여하는데 있어 고려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직원들에게 한 이야기로는 사건을 다룰 때에는 정치적인 용어가 필요하다고 해요. '사상'이 아니라 문학적인 표현을 통해 타이틀을 잡는 것이 필요하죠. 이용자들 입장에서는 사서들이 어떠한 고민을 통해 만들어냈느냐가 아니라 보여지는 워딩을 통해 균형이 잡혔는지를 느끼기 때문에 (이름 짓기에) 더 테크닉이 필요하다고 하죠. (관장 B)

A도서관은 테마 컬렉션의 이름 짓기 자체가 컬렉션을 개발하는 과정이고 또한 서비스라고 한다.

네이밍은 사람들에게 추상적인 것과 익숙하지 않은 것을 익숙하게 풀어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컬렉션 과정 중에 좋은 텍스트를 많이 만나요. 그런 텍스트에서 이름을 발췌해왔을 때 출처를 밝혀서 이를 통해 또 다시 새로운 책과 연결될 수 있게 하기도 해요. (사서 A2)

이처럼 테마 컬렉션의 이름 짓기 과정에서 컬렉션이 이용자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예민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테마의 성격이 완화된거나, 다른 자원으로 관심사가 확장되는 등

다양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5 테마 컬렉션 운영

3.5.1 컬렉션 운영

테마 컬렉션의 운영에서는 컬렉션의 유형, 유형에 따른 운영 주기와 위치, 규모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테마 컬렉션 이용 및 서비스 이후의 접근성과 물리적인 관리에 대한 내용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파악한 테마 컬렉션의 대부분은 김영석, 박연식, 이용주(2018)가 구분한 4가지 테마 컬렉션의 유형 중 특정 도서와 프로그램, 정보서비스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유형에 해당한다. 분석 대상 도서관들 중 B, C, D도

서관은 지자체 소속 공공도서관으로서 테마 컬렉션의 운영에 있어 대체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거나 사립 공공도서관인 A도서관은 여러 가지 차이와 특성을 보이고 있다(〈표 6〉 참조).

A도서관은 자료실이나 자원의 형태를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테마 안에 여러 자원을 포함시켜 한 곳에서 컬렉션을 제공하는 반면, 나머지 세 개의 도서관은 자료실 공간별 컬렉션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실별로 개별 컬렉션이 운영되는 B, C, D도서관의 경우, 세부 테마 컬렉션명이 있는 것이 보통이고, D도서관과 같이 실별 컬렉션을 통합하여 치칭하는 통합 테마명이 있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표 6〉의 D도서관 사례에서 실별로 운영되는 세 개의 테마 컬렉션을 통합하여 ‘팩트 체크’라는 통합 테

〈표 6〉 테마 컬렉션 운영 방식(사례)

도서관	시기 (운영기간)	테마 컬렉션 종류	운영 장소	테마 컬렉션명	접근 제공	
A	2017.1 (상시)	-	1층 서가	나는 왜 이일을 계속 하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태그 부여 • 홈페이지에 컬렉션별 썸네일 제공 • MARC에 기록 	
B	2018.10 (1개월)	-	로비	우리집 뽀빠는 걸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 기간 이후에는 별도의 기록으로만 남아 있음 	
			랩실	떠나자! 스위스 인생 여행		
			자료실 2	책이 우리에게 오는 새로운 방식 누구도 기억하지 않는 역에서		
			자료실 3	한글날, 10월의 독립운동가		
C	2018.6 (1개월)	-	키득키득	1F 어린이책나라	나도 선거하고 싶어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C에 기록 • 블로그에 소개
			작가의 나무	1F 어린이책나라	세 번째 이야기: 전미화 작가	
			문학잡식	1F 커뮤니티자료실	러시아, 소설로 만나다	
			책마고우	1F 커뮤니티자료실	우리들도 투표하고 싶어요	
			책끝리오	3F 종합자료실	삶과 죽음 사이에 서서	
필름토픽	2F 디지털자료실	한국이 사랑한 일본영화 TOP 10				
D	2019.7 (1개월)	-	종합자료실	팩트 체크	눈먼 자들의 뉴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MARC에 기록 • 블로그에 소개
			청소년자료실		뉴스의 중심에 서다	
			어린이자료실		그들은 믿지 마세요	

마명을 설정하고 있다.

A도서관은 한 번 구축된 테마 컬렉션을 해체하지 않고 '사담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1층에서 상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세 개 도서관은 보통 1개월 정도 서비스 한 이후 테마 컬렉션을 해체하여 자료를 원래의 자리에 배가한다. 하지만 B, C, D도서관에서도 명확하게 정해진 운영 기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컬렉션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 달에서 두 달 정도의 주기를 갖지만, 프로그램 연계를 통해 구성된 컬렉션은 프로그램 진행기간과 동일하게 제공되기도 한다.

B, C, D도서관 컬렉션의 규모를 보면 보통 하나의 테마에 10권에서 20권 내외의 책이 제공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서관마다 컬렉션의 성격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의 수는 다양했다. A도서관에서는 하나의 테마 컬렉션을 구성하는 자료들에 단행본 뿐 아니라 다양한 비도서자료와 관련 자원들도 포함하고 있다. 즉, 테마와 관련된 도서관 행사에 대한 이용자의 후기 글, 신문, 인터넷 기사, 특허 정보, 논문, 관련 단체의 자료집 등 하나의 테마에 대한 다양한 자원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구조로 도서관의 테마 컬렉션 메뉴가 설계되어 있다. 특히 테마 컬렉션이 일정 기간 이후 해체되지 않고 상시 제공되므로 초기 구축 이후에도 자원을 보완하는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테마 컬렉션 서비스로 제공된 도서의 온라인 접근성을 보면, 조사 대상인 4곳 도서관 중 3개의 도서관이 컬렉션으로 선정된 도서의 MARC에 그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그 중 하나의 도서관은 검색도 가능하였고 나머지 두 개관은 블로그를 통해 컬렉션 장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MARC에 그 기록을 유지하지 않는 도서관의 경우 컬렉션 도서를 별도의 기록으로만 보관하고 있어 이용자가 지난 컬렉션 장서를 파악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도서관은 다른 도서관들에 비해 활용성 증진을 위한 여러 시도를 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테마 컬렉션 마다 태그를 부여하여 해당 컬렉션이 제시하고자 하는 주제를 다양한 용어를 통해 드러낸다. 또한 도서관 홈페이지의 첫 화면에 테마 컬렉션들을 개별 썸네일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있다.

3.5.2 운영 지원

테마 컬렉션은 장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디스플레이의 변화(Camacho, Spackman and Cluff 2014; 안정희 2015)로, 혹은 정보 환경과 이용자의 기대 변화에 부응한 진화된 참고서비스(Ranasinghe and Chung 2019)로 해석되기도 한다. 테마 컬렉션은 도서관의 인력, 장서, 공간 등 모든 가용 자원의 집약이 요구되는 고도의 지적 정보서비스이기도 하다. 때문에 테마 컬렉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교육이나 지침을 비롯하여 테마 컬렉션 발전을 위한 다양한 도서관의 지원 노력이 필요하다.

조사 도서관 대부분에 테마 컬렉션 서비스를 위한 공식적인 교육 과정이나 지침 등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A도서관은 테마 컬렉션 구축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권역별로 '사담 컬렉션 워크숍'을 진행해왔고, 다른 도서관들은 여기에 참여해 본 적이 있다고 답하였다.

교육이나 활동과 같은 개별 지원은 없으나 C도서관은 이용자의 요구를 테마 컬렉션이 담아낼 수 있도록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조직 개

편의 목적은 일상적으로 사서가 이용자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보직에 맞게 상담을 다 해서 전체를 다 바꿨어요. 아예 조직에서 그 업무를 부여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이전에 근무했던 OO도서관에서는 조직 구성 때부터 고민이 많았기 때문에 사서들을 데스크에 전면 배치하고, 사서들이 컬렉션과 이용자를 만나는 두 가지 업무를 반드시 하도록 보직을 부여 했어요. 즉, 책과 이용자를 만나는 일을 둘 다 하도록 조직을 개편 했어요. (관장 C)

D도서관도 이용자와의 대면과 상호작용을 중요시하고, 이를 도서관 업무 구조에서 얻을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한 요소라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된 업무 구조는 사서들의 의사소통을 향상시키고 업무 협조가 수월하다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

테마 컬렉션 성공의 기본은 이용자 요구지요, 이용자 요구를 좀 더 많이, 깊게 파악할 수 있는 직무구조를 만드는 것이예요. 사서라는 직업은 사람을 만나는 서비스 직업인데 그런 부분이 덜 강조된 것 같아요. 이용자가 무슨 자료를 원하는지를 파악하려면 데스크에 앉아봐야 해요. 이용자들이 아직 까지 도서관 데스크에서 이야기를 해보는 경험이 많이 없다보니까 단순한 질문만 하는 경우가 많죠. 사서가 데스크에 앉아서 이용자 질문을 받고, 이용자는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자료를 제공 받고... 그런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하죠. (관장 D)

한편, 모든 면담 대상 사서들은 도서관이 테마 컬렉션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

움으로 '시간 부족'을 꼽았다.

우선 멀티가 되어야 하니까... 표면적으로도 정해진 일을 딱 할 때와, 연결고리가 있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때에는 시간투자를 더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서 C2)

교육이 아니더라도 모여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확보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서 D1)

시간 부족은 사서뿐만 아니라 관장이 테마 컬렉션 운영을 위해 사서들을 이끄는데 있어서도 가장 큰 어려움으로 파악되었다. 컬렉션 서비스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테마의 결정에서 장서의 선정, 컬렉션 연계 서비스 등을 함께 고려하게 되므로 테마 컬렉션 업무는 사실상 도서관 전체 구성원이 담당하고 있는 모든 업무와 관련이 있다. 컬렉션 구축 및 운영을 위해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의 양이 급증하며, 상황에 따라 빠른 업무 전환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부수적으로 딸린 일들, 전시에 관련된 코팅이나 리플렛 제작이라든지, 이전 파일도 만들어서 같이 비치할 한다든지 등등 하나의 컬렉션에 관련된 소소한 정리 업무들이 꽤 많아서 이점을 힘들어 하는 것 같아요. (관장 C)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A도서관은 집중 업무일을 확보하고자 기존의 휴관 요일인 월요일 이외에 평일 중 하루를 더 휴관일을 정했다. A도서관은 사립 공공도서관이라는 특성상 이러한 과감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었고, 이

를 통해 테마 컬렉션 구축 및 운영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여 컬렉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고자 하였다. 또 한편으로는, 사서들이 지나치게 시간을 소모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컬렉션을 구축하여 내놓을 수 있도록 테마 컬렉션의 완성도에 대한 집착을 줄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B도서관의 경우 컬렉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공간 재배치, 업무 세분화, 프로그램 통합, 공부방 업무 및 사물함 열쇠 관리 업무 축소 등 기존의 사무적인 업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업무 개편을 통해 테마 컬렉션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노력하고 있었다.

테마 컬렉션의 효과는 도서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나타났다. 서비스 이용의 효과는 도서 이용 행위로 나타나기도 하고, 인식의 변화로 나타나기도 했다. B도서관 사서의 경험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용자들의 반응이 좋고 Sold Out 되듯이 예약과 대출이 쭉 걸릴 때 눈으로 보는 게 재미있어요, 하지만 어떨 때에는 아주 냉담했어요. 힘들어서 한때는 분류기호표대로 컬렉션을 문학만으로 배치 해둔 적이 있었는데, 이용자들이 깊이 없음을 아셨는지 냉담한 반응들 또한 눈에 보였죠. (사서 B2)

3.6 테마 컬렉션의 효과 및 확산

3.6.1 테마 컬렉션 효과

테마 컬렉션의 효과는 도서관별로 가장 많은 개념이 추출되었는데 내용을 서비스, 이용자, 사서, 도서관, 사회와 관련된 영역으로 나누어 보면 <표 7>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용자 측면에서는 '이용자 요구 응답',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증가', '이용자의 시각 변화' 측면에서 효과를 인지하고 있었다. 이용자의 시각이 변화했다는 것은 도서관과 사서에 대한 이용자 시각과 인식이 변화되었다는 것을 뜻한다. C도서관 관장에 따르면, 한 이용자는 테마 컬렉

<표 7> 테마 컬렉션의 효과

영역	하위 개념	
서비스	다양한 도서 이용 증가, 새로운 도서 이용 증가, 컬렉션 도서의 빠른 대출, 대출 증가, 비대출도서의 대출, 새로운 책의 인지, 이용자 책 관심 증가, 참고질문 증가, 이용자 다양화, 이용자 독서 지도 효과, 이용자 증가, 대외 협력 증가	
이용자	이용자요구 응답	이용자 요구가 장서개발로 연계, 특정 분야 도서의 인지, 장서와 이용자요구 연계, 빠른 이용자 요구 파악
	이용자와의 상호작용 증가	이용자와의 신뢰 증진, 이용자와의 만남 증가, 이용자와의 소통 증가, 수월한 소통
	이용자의 시각 변화	이용자의 인식 변화, 살아 있는 도서관 체험, 이용자 자기표현 증가
사서	사서 문제해결 능력 증가, 사서 인식 향상, 사서 존중, 사서에 대한 배려 증가, 사서역량 강화, 사서의 문학적 소양 증가, 사서의 역할 인정, 사서의 장서 장악력 증가, 사서의 즉각적인 대응, 사서의 직무 만족도 향상, 사서의 학습 동기화	
도서관	사서의 대화에 장서가 중심, 도서관 홍보 효과, 효율적 조직 관리, 도서관 관심도 증가	
사회	다양한 의제설정 역할, 사회적 요구 응답	

션을 접한 후 “도서관이 살아있는 유기체라는 느낌이 들었다”고 표현하였다. 이는 랑가나단의 도서관학 5법칙 중 “The library is a growing organism”이라는 제 5의 법칙이 이용자의 입을 통해 직접 발화되는 놀라운 경험이었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테마 컬렉션을 접하는 이용자의 자기표현 증가를 통해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의 역량이 증진된다는 측면에서 그 효과를 주목할 만하다.

컬렉션을 꾸준히 읽어본 이용자와 그렇지 않은 이용자들은 도서관이나 사서나 책에 대해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것을 느껴요. 특히나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사회 현상들도 새롭게 바라보고 생각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사서 A2)

테마 컬렉션이 사서에게 미치는 효과는 사서의 역량 발전과 사서에 대한 인식의 변화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서의 역량 증진은 ‘사서의 인문학적 소양’, ‘사서의 문제해결 능력’, ‘학습 동기 부여’ 등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테마 컬렉션 구성을 위해 많은 자원을 검토하고 선별하는 과정에서 사서들이 얻게 되는 장서에 대한 지식이 사서의 역량이며, 이는 도서관에 따라 ‘장서에 대한 자신감’, ‘장서 장악력’ 등으로 표현되었다.

사서들이 책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어지고 사서들이 만났을 때 수다의 종류가 (책에 대한 것으로) 바뀌는 것을 느끼죠. (관장 C)

매주 수서회의를 하면 ‘거기’, ‘그거’와 같이 대명

사로 말을 해도 다 알아들어요. 장서에 대한 장악력을 실감하는 중이에요. (관장 A)

강미혜(1996)는 전시 서비스가 사서에 대한 인식을 증가시킨다고 하였고, 정유라와 이지연(2017)은 테마전시 서비스를 통해 이용자는 사서의 적극성과 성실성을 인지하고 사서의 도움을 체감한다고 하였다. 사서가 테마 컬렉션 구축 과정에서 장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장서에 대해 자신감을 가지게 되어 문제해결 능력이 향상되며 이용자들의 정보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짐으로써 사서에 대한 인식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다.

3.6.2 테마 컬렉션의 확산 및 방향성

테마 컬렉션 서비스의 확산은 효과나 운영 다움으로 많은 개념이 추출되었는데 조사 도서관 모두 그동안의 서비스 제공으로 축적된 구축 노하우와 성과 확산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테마 컬렉션의 성과 확산을 위해 D도서관은 3년간의 테마 컬렉션을 책자로 제작 및 전시하고 이를 작은 도서관에 배포하고 있다. 또한, 파일로 제작하여 블로그 및 게시판에서 업로드 하여 온라인으로 쉽게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도서관의 경우 2015년부터 3년간 시즌제로 전국을 권역별로 나누어 총 6회의 워크숍을 개최하여 각지의 사서들에게 그동안 축적된 컬렉션 구축과 운영의 노하우를 공유하였다.

면담 대상자들은 테마 컬렉션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노력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첫째, 컬렉션 확산과 성공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교육으로 꼽았다. 장서와 관련된 정보원 교육, 주제전문 교육, 장서의 주제별 워크숍 확대가 필요하다고 하였고 이와 더불어 사서들의 교육 시간 확대, 사서들이 스스로 학습할 시간 확보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둘째, 지역 사회 참여와 협력 등 도서관 커뮤니티와의 관계 형성을 강조하였다. 테마 컬렉션의 성공을 위해 자관의 이용자와 커뮤니티에 대한 충실한 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용자를 대면할 수 있는 직무 구조의 변화를 꼽았다. 사서들이 행정업무에 매몰되지 않고 이용자를 직접 대면하는 일상적인 경험을 통해 이용자와 장서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가 증진되기 때문이다. 더불어 예산 및 공간의 확보, 컬렉션 성과를 가시화 할 수 있는 장치, 그리고 통계교육에 대한 요구도 나타났다. 테마 컬렉션의 발전과 확산을 위해 필요한 내용을 <표 8>과 같이 정리하였다.

특히, 서비스의 확산을 위해서 테마 컬렉션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정량적인 평가에 대한 도서관의 요구가 많이 나타났다. 테마 컬렉션을 통한 이용자와의 소통 증가, 인식 증가와 변화 등 <표 7>과 같은 다양한 효과들이 감지되고 있으나, 실제 길으로 드러나는 효과는 대출량, 프로그램 참여자 수 정도로만 파악할 수 있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효과를 경험으로만 말씀 드리다보니 성과 지표로 나타낼 수 있다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는 결국 정량적인 지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없는 상태인거죠. 이런 성과들이 경험으로만 남다보니 증명에 있어서 힘들어요. 정량적인 것이 나와야 인정이 쉬운데... (사서 B1)

4. 테마 컬렉션의 구축 및 운영 모형

지금까지 살펴본 테마 컬렉션의 구축 및 운영의 전반을 테마 컬렉션의 계기, 목적, 구축, 운영, 효과의 측면에서 분석하여 종합적으로 도식화 하면 <그림 3>과 같다.

테마 컬렉션의 계기는 별치의 증가, 자료의 성격에 맞는 분류의 필요성, 디스플레이 강화의 요구 등 기존의 장서를 색다르게 제시해야 할 다양한 필요와 더불어, 이러한 요구에 대해 새로운 서비스로 대응하고자 하는 관장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 되었다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구축에 있어서는 도서관 내외부의 자료와 기관, 다양한 인적 노력과 활동을 테마의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으며, 도서관 내 구성원들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테마가 선정되고 있었다. 테마는 생활 밀착형 소재이거나 사회적

<표 8> 테마 컬렉션의 발전과 확산 요소

영역	하위 개념
교육	정보원 교육, 책에 대한 교육, 정리 교육, 주제별 장서 워크숍, 시사 교육, 정보서비스 교육, 사서의 역량 개발, 컬렉션 강좌, 정보 교류, 사서의 학습 시간 확보
협력	지역사회 참여, 주변에 관심, 관계 형성
조직	직무 구조 변화, 조직 구조 개선, 이용자 대면 조직 구조, 데스크 업무
기타	테마 컬렉션의 목록화, 검색, 성과 측정, 통계, 예산, 참고서비스 확대, 다양한 매체로 컬렉션 구성



〈그림 3〉 테마 컬렉션 구축과 운영의 현행 모형

으로 시의성을 띤 것이 선택되었으며, 공공도서관 이용자가 부담감이나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의 이름으로 제공되었다.

운영의 측면에서는 운영의 방법, 주기, 규모 등에 있어서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테마 컬렉션의 이용을 위한 활용 지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나 업무적 지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었으나, 도서관에 따라 적극적인 조직 개편, 업무 조정 등의 방법으로 테마 컬렉션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도 발견되었다.

테마 컬렉션의 효과는 서비스, 이용자, 사서, 도서관 및 사회의 측면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다만 이러한 효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부족하다는 점은 공통된 아쉬움이었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할 때, 테마 컬렉션

은 특히 정보서비스, 장서관리, 조직경영, 분류와 같은 도서관 운영과 서비스 전반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구축 단계 중 '테마의 정보원'의 측면에서 이용자와의 소통과 사서의 학습에 의해 테마가 선정되며, 이는 이용자 면대면 서비스와 사서의 직무교육과 관련이 있다. '테마의 선정'에서는 이용자의 요구가 내포된 테마에 적합한 컬렉션 구축을 위해 다양한 주제 분야의 장서를 검토하고 선정하면서 장서를 파악하고 새롭게 수서가 이루어지기도 하는 등 장서개발을 유발한다.

운영 단계에서 '이용 및 접근'은 테마 컬렉션 접근성 향상을 위한 MARC 처리, 검색 인터페이스 개발 등에 대한 논의를 필요로 한다. 또한 테마 컬렉션은 분류에 대한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다. 면담 결과, 사서들은 테마 컬렉션

데이터의 충분한 축적이 전제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용자 중심의 새로운 분류표 생성이 가능할 것이라는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테마 컬렉션이 갖는 도서관 정보서비스로서의 영향력과 파급력을 인지한 도서관들은 도서관 업무의 무게 중심을 행정에서 서비스로 옮겨오기 위해 테마 컬렉션 구축 지원을 위한 조직구조 변화를 꾀하는 등 현실적이고 체계적인 업무 기반 및 환경 마련의 필요성을 보여주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국내 서울·경기지역에 위치한 공공도서관 네 곳의 관장 및 테마 컬렉션 담당 사서 12명을 대상으로 심층면담을 수행하여 테마 컬렉션의 개념을 고찰하고 테마 컬렉션을 구축하는 동기와 목적, 구축 과정을 탐색하고, 운영 방법과 효과를 파악하였다. 심층면담의 결과를 종합하여 테마 컬렉션의 도입을 고려하는 도서관, 운영은 하고 있으나 명확한 개념의 정립이나 방법론 없이 운영하는 도서관, 향후 더 나은 방법과 방향성을 고민하고 있는 도서관 등이 참조할 수 있는 현행 테마 컬렉션의 종합 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결과, 테마 컬렉션은 요즘 도서관계에서 활발하게 시도되고 있는 북큐레이션 활동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도서관 업무의 본질을 충실히 살릴 수 있는 도서관 본연의 업무임을 파악하였다. 즉, 자관의 이용자와 장서에 대한 면밀한 이해를 기본으로 하고, 직원들

이 자관의 목표와 지향을 공유한 상황에서 기존의 장서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석하여 제공하는 메시지이자 서비스인 것이다.

또한 테마 컬렉션은 기존의 업무 영역을 넘나들며 매우 협력적인 작업을 요구하는 특성을 지녔다는 사실을 파악하였다. 테마 컬렉션이 도서관의 다른 서비스와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며 제공되는 서비스라는 점에서 테마 컬렉션으로 인한 효과는 도서관 전체의 서비스 효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향후 테마 컬렉션의 구축이 더욱 확대되고 정착되기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던 업무의 경계를 넘나드는 작업이 가능하도록 보다 협력적인 조직 문화를 형성하고, 필요시 부서나 직렬간의 융합적인 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업무 개편 및 조직 개편도 고려해야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도서관에서는 테마 컬렉션에서 비롯되는 서비스, 이용자, 사서, 도서관과 사회 영역의 다양한 효과들이 현재 대출 건수와 프로그램 참여 건수로만 파악된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서관 서비스 성과 측정의 측면에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테마 컬렉션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실질적인 분석을 통해 도서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북큐레이션 또는 테마 컬렉션의 효과를 확인하고 성과를 확대하는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테마 컬렉션의 발전 방향과 내용을 설계하고 향후 테마 컬렉션 운영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 고 문 헌

- [1] 강미혜. 1996. 대학도서관의 전시에 대한 효과 분석. 『한국문헌정보학회지』, 30(2): 107-125.
- [2] 김영석, 박연식, 이용주. 2018. 『북 큐레이션, 책으로 말을 걸다』. 경기도도서관총서 21.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 [3] 박양하. 2016. 학교도서관 북 큐레이션 서비스를 위한 도서추천 기준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7(1): 279-303.
- [4] 박휴용. 2014. 『초보 연구자를 위한 질적연구 방법론』. 전주: 전북대학교 출판문화원.
- [5] 백지원. 2018. 공공도서관 테마 컬렉션의 기능과 특성. 『한국문헌정보학회지』, 52(4): 51-69.
- [6] 안정희. 2015. 『책 읽고 싶어지는 도서관 디스플레이』. 경기도도서관총서 13. 수원: 경기도사이버도서관. [online] [cited 2019. 4. 11.]
<<https://memory.library.kr/files/original/3344fabd94516dfc9bab726d1688df94.pdf>>
- [7] 이은정, 김기영. 2017. 학교도서관 이벤트컬렉션 프로그램의 독서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4(1): 73-110.
- [8] 정유라, 이지연. 2017. 공공도서관의 테마전시 이용에 따른 이용자의 도서관 인식 및 이용행태 변화 연구. 『정보관리학회지』, 34(2): 27-45.
- [9] 플릭, 우베. 2009. 『질적 연구방법』. 임은미, 최금진, 최인호, 허문경, 홍경화 역. 한울아카데미 1102. 서울: 한울.
- [10] W. M. Tharanga Dilruk Ranasinghe, Jun Min Chung. 2019. Understanding the Curation Service in Libraries: Is it a Revolution or an Evolution of Reference Service?.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0(2): 215-235.
- [11] Baker, S. L. 1986. "The display phenomenon: An exploration into factors causing the increased circulation of displayed books." *Library Quarterly*, 56(3): 237-257.
- [12] Camacho, L., Spackman, A., and Cluff, D. 2014. "Face out: The effect of book displays on collection usage." *Journal of Business & Finance Librarianship*, 19(2): 114-124.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1] Kang, Mia-Hye. 1996. "An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of the exhibits in university librar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30(2): 107-125.
- [2] Kim, Young Suk, Park, Yeon Sik and Lee, Yung Ju. 2018. *Book curation: talk with the*

- books. Gyeonggi-do Library Series 21. Suwon: Gyeonggi-do Cyber Library.
- [3] Park, Yang-Ha. 2016. "A Study on the Book Recommendation Standards of Book-Curation Service for School Library." *Journal of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7(1): 279-303.
- [4] Park, Hyu-Yong. 2014. *Qualitative research methodology*. JeonJu: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ress.
- [5] Baek, Ji-Won. 2018. "Functions and Characteristics of Public Library Theme Collection: Focusing on the User-centered Classification Perspectiv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52(4): 51-69.
- [6] Ann, Jung Hee. 2015. *Library Display where You want to Read Books*. Gyeonggi Library Series 13. Suwon: Gyeonggi Cyber Library. [online] [cited 2019. 4. 11.] <<https://memory.library.kr/files/original/3344fabd94516dfc9bab726d1688df94.pdf>>
- [7] Lee, Eunjung and Kim, Giyeong. 2017. "A Study on the Reading Effectiveness of School Library Event Collection Programs: Focusing on Korean Histor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1): 73-110.
- [8] Chung, Yoo Ra and Lee, Jee Yeon. 2017. "A Study on Public Library Users' Perceptions and Behavior Changes after Using the Theme Display Servic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4(2): 27-45.
- [9] Flick, Uwe. 2009. *An introduction to qualitative research*. London: Sage Publications. translated by Lim, Eun Mi, Choi, Geum Jin, Choi, In Hoo, Heo, Moon Kyung, Hong, Kyunghwa. Seoul: Hanul Publishing Co.